

전남도, 무안군에 광주 민간·군공항 통합이전 대화의 장 참여 호소

대통령 약속한 정부 주도 6자 TF 출범 앞두고 참여 당부

전남도는 19일 "전남과 무안이 광주 민간 군공항 통합이전의 더 큰 미래를 함께 열어가 수 있도록 무안군이 대화의 장에 참여해달라"고 호소했다.

전남도는 이날 도의회 도정질의 답변 이후 추가 발언에서 입장문을 발표, "전남도는 광주 민간·군공항 통합이전에 대해 오로지 지역발전을 위해 도민과 무안군민의 편에서 늘 한결같은 입장을 지켜왔다"며 "앞으로도 무안군민의 목소리를 최우선으로 6자 TF에서 다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2018년 광주·전남·무안이 합의한 민간공항 이전 협약을 2020년 광주시가 파기했을 때 강한 유감 표명과 사과를 요구하고, 2023년 5월에는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담화문을 통해 공항이전 당위성과 무안군의 대승적 결단을 호소했다. 같은 해 3조 원 규모의 무안 미래지역 발

광주 민간공항 선이전 등 무안군 3가지 조건 최우선 논의 약속

대규모 지역개발 전략 연계 서남권 혁신 거점 도약 기회 강조

전 비전도 함께 제시한 바 있다.

또한 무안국제공항 활성화에도 여러 노력을 기울여 활주로 연장과 여객청사 확충, 정기노선 지원, KTX 2단계 개통 등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왔다.

전남도는 "지금 우리는 무안국제공항을 진정한 서남권 거점공항으로 키우고, 무안군이 미래발전 혁신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를 맞았다. '물 들어올 때 노 젓겠다'는 비장한 각오로 힘을 모아야 할 순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이 약속한 정부 주도 6자 TF가 곧 출범되는 만큼 정부와 무안군, 전남도, 광주시가 대화를 통해 해법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무안군이 대화의 장에 참여

여해 주기를 당부했다.

특히 무안군이 제시한 세 가지 조건인 ▲광주 민간공항을 호남고속철도(KTX) 2단계 개통 전까지 무안국제공항으로 선(先)이전 ▲광주시의 1조 원 규모 지원 보장 ▲국가 차원의 획기적 지원책 마련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6자 TF에서 반드시 최우선적으로 논의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지금 바로 무안군의 미래 발전을 위한 전환점이다. 광주 민간공항과 군공항이 이전된다면 무안국제공항은 명실상부 동북아 관문공항으로 자리매김 할 것"이라며 "무안 국가산단, 미래 첨단 에너지시티, AI 첨단 농업업 플랫폼 등 대규모 지역개발 전략과 연계한다면 무안이

서남권의 혁신거점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항상 무안군민의 편에서 무안군과 도민의 목소리를 최우선에 두고 정부, 광주시와 끝까지 협의하겠다"며 "이 기회를 함께 살려 지혜를 모아주신다면 반드시 그 뜻을 받들어 무안군의 더 큰 도약으로 보답하겠다. 무안의 미래, 그리고 도민의 꿈을 함께 열어가자"고 말했다.

최근 '광주 민간·군 공항 통합이전'에 대한 한 여론조사에서 무안군민 53.3%가 무안으로의 통합 이전에 찬성하며, 처음으로 찬성이 과반을 넘기는 의미있는 결과도 나왔다. 전남도는 광주·전남 다운을 미팅 이후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신산업 유치 기반과 주민 경제력 향상 등을 소망하는 군민들의 바람과 대통령의 국가주도 추진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염선호 기자



'천사의 날개를 펼치다'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동부경찰서 등 참여, 지한초등학교 학생·부모 등 대상

광주 동구(청장 임택)는 지난 18일 지한초등학교에서 '아동학대 예방 5차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초등학교와 학부모 480여 명이 대상으로 아동학대의 심각성과 예방의 필요성을 알리고, 학대 상황을 인지하고 스스로 신고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양성평등아동과 아동보호팀 주관으로, 동부경찰서, 동부교육지원청, 빛고을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했다.

현장에서는 'OX 퀴즈'를 통한 아동학대 예방 교육이 진행됐다. 학생들은 문제를 듣고 손등작으로 OX를 표시하며 참여해 아동학대 예방 메시지

를 쉽고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동구는 이번 캠페인에서 학생들의 참여 효율을 높이고, 혼잡 상황에서의 안전사고 위험도 최소화하는 등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학교 시간과 교내 동선을 사전에 점검하고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 운영 편의성과 현장 안전 확보를 위해 만전을 기했다.

임택 동구청장은 "아동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체험 중심의 예방 캠페인을 꾸준히 이어가 안전하고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오철수 기자

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벌초와 성묘 등 야외활동이 늘어남에 따라 진드기 물림과 설치류 매개 감염병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광주보건환경연구원은 매월 진드기 발생 감시를 실시하고 있다. 조사 결과, 매년 9월부터 썩까무시증(SFTS)을 매개하는 털진드기 유충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을 옮기는 참진드기 유충 밀도도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털진드기 유충은 크기가 0.15~0.3mm로 육안 식별이 불가능하다. 감염되면 10일 이내 잠복기를 거쳐 두통, 발열, 오한 등이 발생하며, 물린 부위에 5~20mm 크기의 검은색 가피(딱지)가 형성된다. SFTS 매개 참진드기에 물린 경우 진드기가 피부에 단단히 고정돼 무리하게 떼어낼 경우 일부가 피부에 남아 있을 수 있

광주시, 추석연휴 진드기·설치류 감염병 주의

썩까무시증·SFTS 등 확산 우려... 개인위생관리 철저 당부

어 의료기관에서 전문적으로 제거 및 소독을 받는 것을 권장한다. 광주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10월 광주지역에서 채집한 야생 설치류에서 신증후군출혈열 바이러스를 확인했으며, 펠트 스피라자증은 여름철부터 10~11월 사이 주로 검출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호우

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북구는 인센티브의 일환으로 특별교부세 8천만 원을 확보하게 됐으며 이는 주민 편의 증진 사업에 재투자될 예정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 14회 연속 최우수기관 선정은 북구 전 직원이 한마음으로 주민을 위한 재정집행에 매진해 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을 통해 주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송현근 기자

북구 및 농작업 과정에서 고인 물과 접촉할 때 감염 위험이 높다고 덧붙였다.

진드기 및 설치류 매개 감염병은 개인 위생 관리가 필수적이다. ▲긴팔·긴바지, 모자, 양말, 장갑 등 보호 복장 착용 ▲풀밭 위에 눕거나 용변 보지 않기 ▲등산로의 산길 이동 자제 ▲야생동물 접촉 금지 ▲야외활동 후 의복 세탁 및 샤워로 진드기 확인 ▲발열 등 의심증상 발생 시 즉시 의료기관 방문 등이 주요 수칙이다. /전광훈 기자

광주 남구, 에너지 인식전환 활동가 '바쁘다 바빠'

에너지 절약 캠페인·정책사업 홍보 등 맹활약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가 탄소중립 실현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유도를 위해 다각적인 사업을 전개하는 가운데 구청 주관 전문가 교육과정을 거쳐 에너지 인식전환 활동가로 거듭난 주민들이 일상 주변에서 왕성한 활동을 펼치며 맹활약하고 있다. 남구에 따르면 에너지 인식전환 활동가는 관내 주민들에게 에너지 전환 문화를 알리면서 구청과 함께 에너지 자립률 증가를 위한 기반 조성 활동에 동참하고 있는 생활 속 실천가들이다.

남구는 올해 에너지 및 환경 분야에 관심 있는 주민들을 공개 모집한 뒤 참가자를 대상으로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 중립, 에너지 전환과 관련한 전문 교육을 시행,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18명을 에너지 인식전환 활동가로 양성했다.

이들은 곧바로 일상생활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치면서 에너지 인식전환 실천가다운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특히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두달간 상가 밀집 지역 등에서 개문 냉방 영업 금지

및 실내 적정온도 유지, 불필요한 조명 소등, 미사용 전자제품 플러그 뽑기 등 에너지 절약을 위한 홍보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했다.

또 진월동 푸른길 공원과 백운광장 등 유동 인구가 많은 공공장소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구청 직접 사업인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을 비롯해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기후 위기 취약계층 콜루프 설치 사업 등 정책사업 알리기 역할도 도맡아 진행했다. 이와 함께 8월 초부터 9월 초까지 기후 위기 대응반과 태양 에너지 지반, 수소 에너지 반으로 구성된 그룹 스타디움 결성, 3차례에 걸쳐 에너지 전환 활동과 관련한 각종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을 보냈다.

에너지 인식전환 활동가들은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제석초교와 유안초교, 대성초교, 농성초교에서 '찾아가는 어린이 에너지 전환 교육 프로그램' 강사로 무대에 오른 뒤 올해 활동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임채일 기자

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지방재정 신속집행 평가'에서 14회 연속으로 '최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지방재정 신속집행 평가'는 행정안전부가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재정집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이다. 북구는 올해 상반기 총 1천 688억 원의 예산을 집행해 목표액인 850억 원 대비 198.6%의 집행률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북구, 지방재정 신속집행 평가 광주 유일 '최우수기관' 선정

'14회' 연속 '최우수기관' 선정 쾌거... 특별교부세 8천만 원 확보

도 동 기간 집행률이 125.6%보다 73% 상승한 수치로 북구의 우수한 재정집행 역량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또한 2분기 소비 투자 분야에서는 목표액 548억 원보다 10억 원을 초과 집행해 재정 집행률 102%를 달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효과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을 받았다. 북구의 이러한 성과에 따라 종합평가 결과 광주에서는 유일하게 지방재정 신속집행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 결과는 그동안 북구가 주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다양한 사업들을 제때 추진해온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가 도시철도 2호선 공사 장기화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65억2000만원 규모의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추가 지원한다.

서구는 19일 김이강 서구청장을 비롯해 이상재 광주은행 부행장, 염규승 광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협약식'을 개

서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65억 추가 지원

업체당 최대 2천만원, 1년간 최대 5% 대출이자 지원

최했다. 이에 따라 서구청은 3억원을 출연하고 광주은행은 2022~2023년 특례보증 사업의 잔여 한도 29억2천만원을 전환, 광주신용보증재단은 총 65억2천만원 규모의 신용보증을 지원한다.

특례보증 지원대상은 서구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으로 광주신용보증재단의 심사와 보증을 거쳐 광주은행을 통해 무담보로 업체당 2천만원까지 5년 이내로 대출이 가능하고 최대 1년간 5%

이내에서 대출이자를 서구에서 지원한다. 특히 서구는 도시철도 2호선 공사 현장 반경 300m 이내 상가를 대상으로 연말까지 보증한도액 36억원을 우선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서구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062-610-0370) 또는 광주신용보증재단 서구지점(062-950-0011)에 문의하면 된다. /박석우 기자

